

# 주요국 석유제품별 소비구조 비교

## 한

국의 석유소비는 94년 현재 세계전체소비의 2.7%를 점하며, 세계 8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90년대에 들어와 연평균 16.8%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소비증가율을 지속한 결과 지난해 캐나다와 영국마저도 앞지른 것이다.

우리나라의 이러한 괄목할 석유소비수준은 경제력이나 석유한방울 나지 않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분명히 분에 넘치는 수준이다. 더구나 GNP규모면에서 우리의 3배이며 우리 소비량의 1.5배에 달하는 석유를 생산하고 있는 영국보다 더 많은 석유를 소비한다는 점에서는 과소비와 소비효율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석유수요확대를 부담으로만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 여기에는 에너지소비구조와 석유소비구성을 다른 나라의 경우와 비교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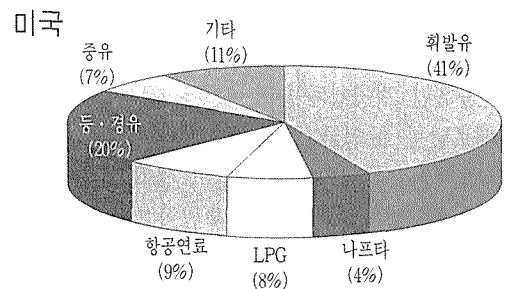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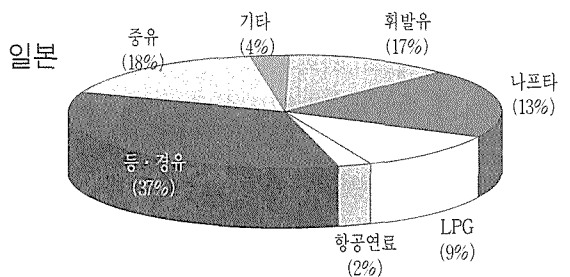
여 살펴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다.

석유소비량은 ① 경제활동규모(경제성장) ② 경제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량(에너지의 효율성) 그리고 ③ 필요에너지중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석유의존도)의 세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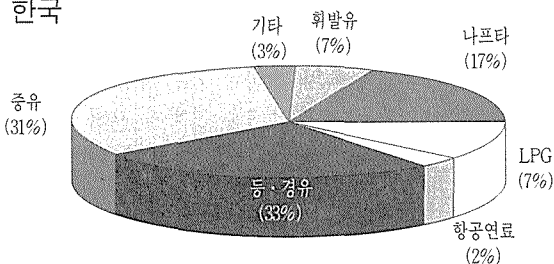
1차에너지중 석유의존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63.1	55.9	37.9	38.3	38.3	40.2	59.2

(단위:%)



## 한국



우리의 경우 비교대상국 가운데 가장 활발한 경제 성장을 하고 있고, 석유의존도 또한 가장 높으며, 에너지 소비의 효율성은 가장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는 석유소비가 크게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세가지 요소를 모두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1차에너지중 석유의존도가 63.1%로 비교대상국중 가장 높다. 따라서 급속한 경제 성장에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 수요를 석유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경제성장이 지속되는 한 석유소비가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에너지 소비구조를 갖고 있다. 또한 석유제품별 소비구성을 보면 우리나라의 석유소비가 경제활동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이 명확히 드러난다.

우리나라의 석유제품 소비 구성은 등·경유, 증유, 나프타, LPG, 휘발유의 순서로 되어 있다. 다른 국가들에 비해 증유와 나프타의 비중이 크고 휘발유의 비중이 작은 것이 특징이다. 증유는 우리나라에서 산업용(47.1%)과 발전용(33.2%)로 사용되고 있으며, 나프타는 전량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반면 사치성 제품으로 분류되어 각종 세금을 높게 부

과하고 있는 휘발유의 비중은 연료유중 가장 낮은 7.4%로서 미국 41.7%, 영국 30.5%, 독일 23.7%에 비해 미미한 수준에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석유소비의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비교적 건실한 구조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석유소비구조는 유종간 가격차와 맞물려 정유산업에게 수익성 악화의 덮이 되어 있다. 다만 외국과 비교해 볼 때 휘발유 비중이 증가할 여지가 많아 일말의 기회가 되고 있다. ♣

주요국 석유제품 소비구성('94)

(단위:천톤)

	한국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휘발유	6,021	37,391	326,756	22,803	16,485	29,800	16,995
나프타	14,082	29,106	27,441	3,525	9,821	-	7,915
LPG	5,384	19,490	58,966	2,397	2,814	3,498	3,300
항공연료	1,824	3,346	70,980	7,201	4,433	5,788	2,534
등·경유	26,500	81,718	154,870	22,440	37,753	61,576	22,414
증 유	24,812	39,777	54,858	9,275	4,658	7,524	26,632
아스팔트	1,362	5,927	29,102	2,569	3,182	3,887	1,994
합계	80,817	218,906	783,288	74,668	82,236	125,899	84,092

자료) 에너지경제(일본 에너지경제연구원)

